

AVENUE JEW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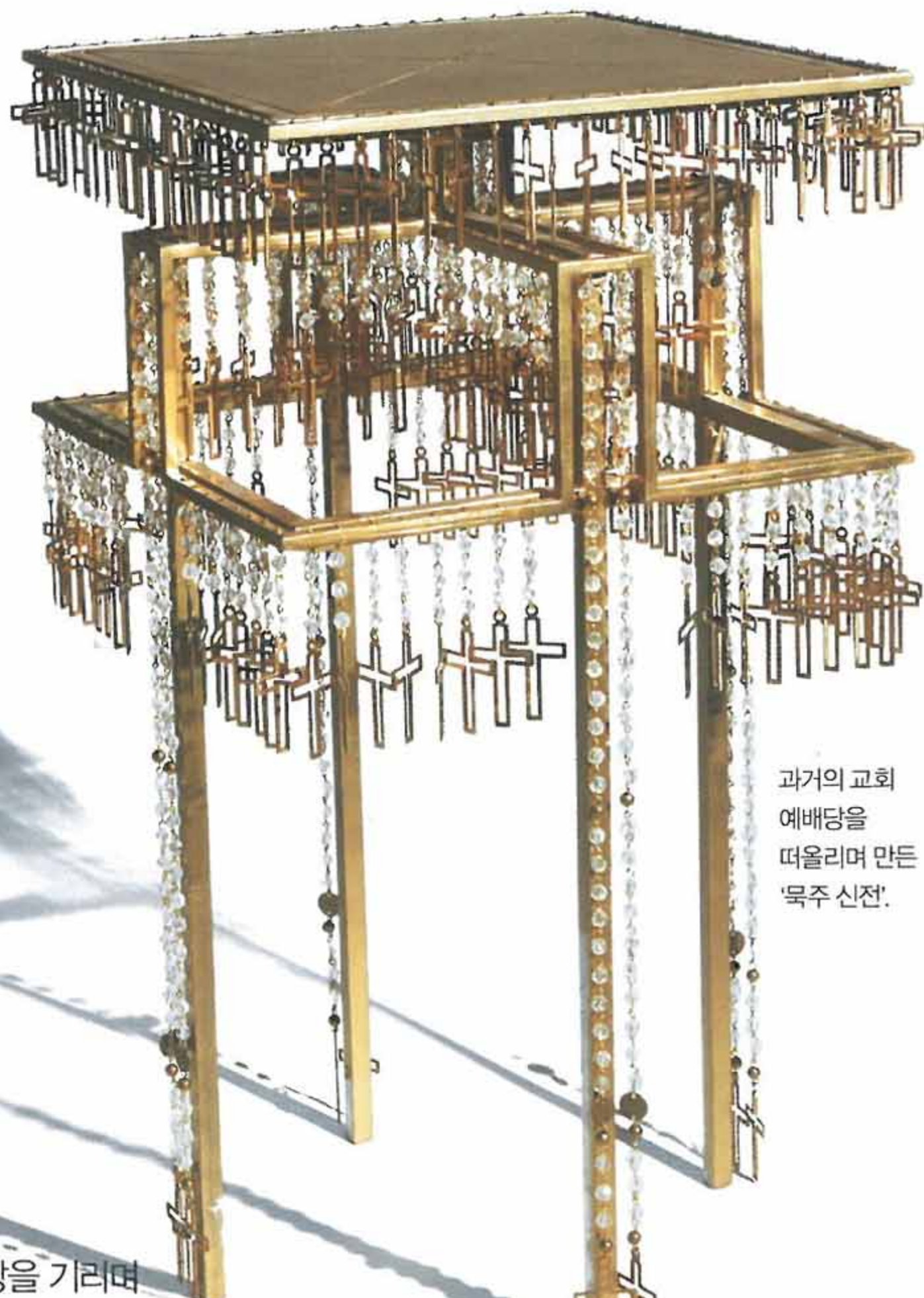
쇼핑 매거진 에비뉴엘 NOVEMBER 2013



COLOR
TALKS



'대기실'이라는 의미를 지닌 설치작품 '살라 드 에스페라(Sala de Espera)'.



과거의 교회 예배당을 떠올리며 만든 '목주 신전'.

예배당을 기리며

건축적 형태나 성스럽고 화려한 장식이 범상치 않은 오리를 뽑어내는 이 작품은 과거 교회 예배당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없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복원하자는 일종의 의식인 셈이다. 듀오 디자이너 라페엘 & 레장(Raphaël & Réjean)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뽑어내는 숭고한 기운을 떠올리며 작품을 구상했다. 총 세 가지 버전으로 디자인된 '채플(Chaple)' 시리즈는 'Thorn Crypt(가시덤불 지하실)' 'Walnut Church(호두나무 교회)' 'Rosary Temple(목주 신전)'로 구성된다. '호두나무 교회'는 네 개의 다리 안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청동 조각상이 박혀 있으며, '목주 신전'은 화려한 크리스털 구슬과 메탈릭한 소재의 십자가가 촘촘하게 프레임을 장식한다. 크기는 모두 27×27×51cm. W. www.raphaelgroelly.com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머무는 '대기실'

국제갤러리 3관 전시실에 거대한 설치작업이 모습을 드러냈다. 적장의 화살처럼 허공을 뚫고 날아와 흰 벽 여기저기에 꽂혀 있는 육중한 나무 기둥들. 곳곳에 나사와 못이 박혀 있는 재료들은 과거 브라질 시골 마을에서 있던 전신주를 옮겨온 것이다. 익숙한 나머지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동네 어귀의 전신주는 시공간을 초월해 낯선 장소로 옮겨진 순간, 놀랍게도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낸다. 전시장에 들어선 사람들은 군데군데 상처 나고 풍화된 나무 기둥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새삼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브라질 출신의 설치미술가 칼리토 카르발료사(Carlito Carvalhosa)는 그 경험이 지닌 의미를 강조한다. "어제 서울에 와서 콘크리트 전신주를 봤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요즘엔 콘크리트 전신주를 많이 볼 수 있죠. 하지만 과거에는 나무를 사용해 전신주를 만들었습니다. 땀감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전신주를 베어다 불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었죠. 여기 놓인 전신주는 그런 시간을 거처온 역사적 오브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대기실'이라고 부르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머무는 공간이라는 의미예요." 빛과 조명의 대비가 미묘한 감각을 깨우는 전시 공간 속에서 카르발료사의 일상적 오브제는 더욱 새롭게 부각된다. 무가치해진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의 작업은 11월 12일까지 국제갤러리 3관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735-8449